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9. 3. 24 ~ 2019. 4. 6 제201호



▶ 오만의 '태양의 산' 싹스산

제공: WMM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해발고도 3009m. 아라비아 동부에서 가장 높은 싹스산은 햇빛을 가장 먼저 받고 그 빛이 가장 오래 머물러 태양의 산이라 불린다. 정상에 이르기까지는 끝없이 이어지는 거친 바위 산맥을 올라가야 한다.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랐다. 오랜 약속의 기다림 끝에 얻은 이삭, 하나님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하신다. 그는 이삭을 품에 안기까

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수없이 많이 넘어진 자신을 변함없이 찾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

아들 이삭이 묻는다. “번제 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약속의 실체라는 것을. 수풀에 걸린 숫양을 친히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이

삭에게도 친히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사망으로 옥여쌘을 당하는 시험 앞에 있는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졌는가? 한없는 외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가? 지금 바로 그 산으로 오르라! [GNPNEWS]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창세기 22:8)

“네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회복할 것이라” 동성애자들의 아이콘 시드니, 거룩한 도시로 회복하라

동성애자들이 걷던 길 행진하며 복음 선포

시드니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환기 사관)는 시드니성시화대회를 열고 동성애자들의 아이콘이 된 시드니를 거룩한 도시로 환원하겠다고 시드니의 거룩성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고 교계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호주 시드니성시화대회는 지난 3월 8일과 9일 양일간 시드니 새순교회(담임 송선강 목사)에서 ‘시드니여, 깨어나라’를 주제로 저녁집회를 가졌다. 특히 10일 오후에는 한 주 전 수만 명의 동성애자와 지지자들이 ‘마그리드축제’라는 이름으로 행진했던 시내 중심가를 호주 기독교당 프레드 나일 목사 등 현지인 성도와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성도들과 함께 행진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후 마틴플레이스 광장에서 찬양집회와 기도회를 열었다.

김환기 대표회장은 “동성애자들의 아이콘이 된 시드니를 거룩한 도시로 환원하겠다는 의지로

시드니성시화운동이 시작됐다”며 대회의 유래를 설명했다. 프레드 나일 목사는 축사를 통해 “시드니의 성시화를 위해 한인교회들이 중심이 돼 대회를 개최하고 행진에 함께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GNPNEWS]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깃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이사야 1:25~26)

기도 | 죄로 물든 시드니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교회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동성애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듣고 살아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76)

“언젠가는 믿게 되겠죠”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예수 믿을 결단을 자주 미루며 주저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그토록 많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일은 유독 미루게 될까요? 예수 믿는 일이 당신에게 얼마나 절실하며 화급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합니다. 맞습니

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은 아니다

당신이 죽으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신은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거짓말, 자랑, 험담,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자연스럽습니다. 죄 중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 당신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인지되십니까?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은

언제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당신이 지은 그 많은 죄의 형벌을 감당하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손을 놓고 당신 손을 잡은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당신의 새 생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자격이 아닌, 당신 안에서 새 생명이 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천국



일러스트=김경선

에서 환영하실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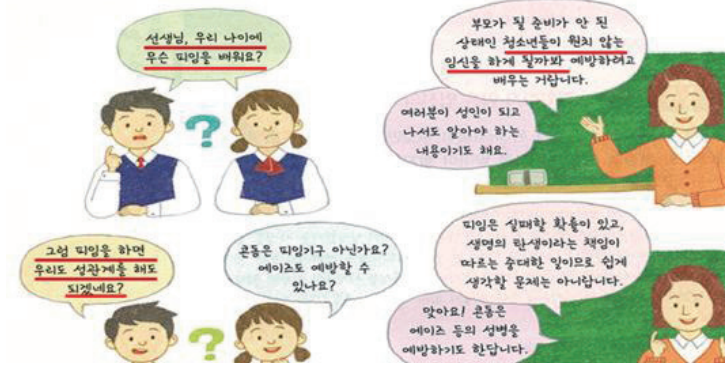
뉴스	무분별한 성교육, 성관념... 도덕·윤리의식 붕괴로 이어진다	2면
기획	“국가의 위대함은 경건한 신앙의 회복에서 나온다”	3면
인터뷰 존 목사·레베카 전도사	“핍박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인도 기독교”	5면
칼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무분별한 성교육, 성관념... 도덕·윤리의식 붕괴로 이어진다

한국교회, 한국 사회의 경건한 신앙 회복을 주도해야

▶ **3** 아래의 만화를 읽고 피임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 이상 말해 보자



▶ '피임'을 강조하는 J출판사의 중학교 보건 교과서(2015년) 내용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성관념을 조장하는 듯한 성교육과 성평등, 동성애를 부추기는 행정부, 교육계, 언론계의 활동이 심각한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의식과 윤리의식 붕괴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무분별한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 지인들과 소셜미디어로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활동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도덕, 윤리의식이 붕괴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국내 유력언론 매체는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기사 등을 노골적으로 게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의 성적타락을 질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를 통해 음란한 동영상은 주고받는 청소년과 일반인들의 삶은 이제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아가는 듯한 것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지난해 말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이 주관한 '교과서의 성적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가정, 기술, 윤리, 도덕, 보건 등 5개 과목의 교과서 81권을 분석한 결과, 현행 교과서가 성해방을 가르치는 교과서 같으며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교육계의 현장 책임자들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유도하는 듯한 피임교육을 부추기는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육계의 현실이다.

또 국가정책을 주도하는 각종 행정부는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주장과 성을 자기 임의로 결정하는 젠더정책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교

육을 전담하는 한 공영방송은 청소년들에게 자위행위를 가르치며, 임신방지를 위한 피임교육을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하고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새뮤얼 애덤스가 "원칙과 예절의 총체적 해체가 미국의 자유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견한 것처럼 공교육현장에서 진화론 교육과 성경교육금지 등 세속적 인본주의 교육과 절대 진리를 인정치 않는 사조들이 오늘날 미국의 동성애 확산과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이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제시하고 양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기독교계에서조차 동성애를 인정하고 성평등을 주장하는 학자와 목회자, 기독교인들의 행보가 진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여론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는 이때 잠언 14장 34절의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한국 사회의 회복을 추구하기 위해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할 때 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어 흑암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이 원산과 평양대부흥을 통해 회복된 거룩함 회복을 위해 경건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만이 다시 한국 사회가 일어서는 길임을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시점이다. [GNPNEWS]

중국 신장, 이슬람 소수민족 200만 명 이상 구금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수용소에 갇힌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신자들이 80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은 80만~200만 명의 위구르, 카자흐족과 다른 이슬람 민족들을 수용소에 억류했다."면서 "국제 인권단체와 언론들은 수용소 안에서 일부 구금자들이 학대와 고문을 받고, 일부는 살해됐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의 자의적인 체포와 감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안들은 행정구류권을 갖고 있으며 정식 체포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다."면서 "지난 해 동안 인권활동가, 변호사, 기자, 종교지도자 및 신도,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임의로 체포 및 억류

됐다."고 전했다.

마이클 코작 인권 담당 대사는 중국의 위구르족 수용소에 대해 "이것과 비슷한 일은 1930년대 이래 볼 수 없었던 일"이라며 "일부 통계에 따르면 당국은 수백만 명을 수용소에 구금해 고문 및 학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930년대를 언급한 것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상대로 한 박해 정책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코작 대사는 또 "기본적으로 당국이 그들(수용자)의 문화와 종교를 DNA에서 지우려는 시도는 정말 끔찍한 일"이라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최소한 국제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소수민족 정책 전문가인 아드리안 젠즈는 "위성 사진과 수용소에 대한 공공 지출, 증언 등을 토대로 자신이 종전 추산한 100



▶ 2018년 3월 뉴욕의 유엔 주재 중국대 표부 앞에서 위구르족의 입을 막고 있는 중국의 손이 그려진 가면을 쓰고 중국의 위구르 수용소에 항의하는 시위대(출처: 유튜브 'China Unscripted' 영상 캡처)

만 명보다 더 많은 최대 150만 명이 불참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이슬람 소수민족의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운 표현을 말살하려 한다. 이는 체계적인 문화적 대학살"이라고 주장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3. 4 ~ 3. 16)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탄자니아, 마술로 치료하다 어린이 숨지게 한 주술사 65명 체포

아프리카 동부 탄자니아에서 마술을 이용해 어린이를 치료하다 숨지게 한 주술사 65명이 무더기로 체포됐다고 BBC가 4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질병 치료를 받다가 숨진 어린이만 10명이 넘는다.

낫고 싶은 간질환이 있으나 옳지 않은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탄자니아 사람들의 전인을 회복시켜주시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유엔 "북한 여전히 인권 문제 심각"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쿼타나가 8일(현지시간) 제4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적절한 절차 없이 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고 있고, 수용소는 고문과 가혹 행위가 만연하다"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실상이 북한 사회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차가운 감옥이 예수생명을 꽃 피우는 아름다운 텃밭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베네수엘라, 정전으로 투석환자 사망·지하철 운행중단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전사태로 투석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 15명이 숨졌으며, 인공호흡기가 작동하지 않아 25세 환자가 사망하는 한편, 수도 카라카스의 시내 지하철도 며칠째 운영을 멈췄다고 9일(현지시간) BBC방송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주님, 경제위기에 대규모 정전으로 극심한 손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시고 마른 골짜기와 같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한국인 2명 최근 2년간 스위스에서 안락사 선택

한국인 2명이 2016년과 2018년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안락사(조력자살)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작년 말 기준 이 단체에 가입한 한국인은 32명으로 2013년 3명에 비해 10배로 늘었다.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에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이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우사 스스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3월 25일 ~ 4월 6일

- 3월 25일~3월 30일 ▶경기 성남 / 새마음교회(조**)010-3888-6800,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김**)010-5057-2149, 3.24(12시)-3.25(24시)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임**)010-2276-8221, 3.25-3.26(10-17시) ▶강원 속초 / 속초동명교회(김**)010-7423-4953, 3.25-26,28-30(19-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3.26~3.27(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290-4316, 3.26~3.29(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3.27(06시)-3.28(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3.28-3.30(09-15시) ▶강원 춘천 / 샘물교회(이**)010-8856-7726, 3.28-3.30(09-18시) ▶경기 고양 / 대화사랑의교회(김**)010-4058-0675, 3.29(19-22시) ▶광주 서구 / 십자가복음교회(김**)010-9883-2347, 그외 14교회 진행중.

- 4월 1일~4월 6일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4.1(0시-24시) ▶경남 울산 / 울산태화교회(박**)010-9326-7767, 4.1, 3-6(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4.1-6(10-22시) ▶경기 평택 / 세교중앙교회(최**)010-2708-5268, 4.2(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4.2-3(10-13시) ▶경기 수원 / 칠보교회(박**)010-6818-2949, 4.3(영덕지역연속기도) ▶경북 영덕 / 영덕지역목회자연합회(김**)010-5507-0198, 4.5(20-22시) ▶광주 동구 / 삶이배인교회(진**)010-4265-0209, 4.5(12시)-4.6(12시) ▶대구 중구 / 대구서현교회(권**)010-9275-7843, 4.6(06-12시) ▶서울 관악 / 신림감리교회(강**)010-3751-0493, 그외 12교회 진행중.

* 자세한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국가의 위대함은 경건한 신앙의 회복에서 나온다”



▶ “플리머스에서의 첫 번째 추수 감사절”(Jennie A. Brownscombe, 1914) 식탁에는 청교도들과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둘러 앉아 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마이클 L. 브라운 박사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순종했던 과거를 기억하며, 미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건한 미국을 꿈꾸며 경건한 삶을 주장하는 그의 라이프사이트뉴스 기고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많은 국가적 문제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놀라운 나라다. 그것이 전 세계에서 물려온 수많은 똑똑한 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유이며, 미국의 사업과 과학기술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다.

과거 미국의 국가 통합 및 도덕성은 지금보다 우위였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위대함은 이 같은 찬란한 역사에서 나온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쇠퇴밖에 없다.

미국이 지금까지 완벽한 기독교 국가였을까? 아니다. 그런 적은 없었다. 오히려 그것과는 거리가 멀

었다. 하지만 미국은 강력한 성경적 근본을 갖고 있었다. 미국의 초기는 작은 마을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았고, 이것은 미국의 위대함의 기반을 다져놓았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14:34) 나는 나의 저서 ‘병든 미국 구하기(Saving a Sick America)’를 집필하는 동안 이 말씀에 빠져있었다. 나는 책의 도입부에서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기를 관통하고 있는 기독교적 근본을 심도있게 추적했다. 그것은 1647년에 통과된 ‘옛 사기꾼 법(Old Deluder Act)’에서 시작한다. 이 법은 한 마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하면, 그 마을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설립을 의무화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옛 사기꾼, 즉 사탄이 그들의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했다.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 대학교와 같은 미국의 훌륭한 대학들은 성경과 선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었다. 알파벳을 배우는 아

주 기초적인 수업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육과정에서는 성경의 진리가 글자를 배우는 수업 자료들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교과서들은 1800년대까지도 흔하게 사용됐다.

미국의 국부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과 성경에 근거하여 도덕적으로 세워진 마을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었다. 새뮤얼 애덤스는 말했다. “적의 총공격보다 원칙과 예절의 총체적 해체가 미국의 자유를 더더욱 무너뜨릴 것이다. 사람들이 미덕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정복되지 않지만, 일단 그 미덕을 잃게 되면 그들은 내외적 침략자에게 그들의 자유를 내어주게 되어버린다.” 얼마나 현명하고 예언적인 말인가.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자유 또한 잃는 것이다.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0년대에 미국에 자주 방문하였는데, 그가 늘 강조한 말이 있다. 비록 그가 이 말을 최초로 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그의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하며 또한 실제로 사실이다.

“나는 미국의 위대함과 천재성의

열쇠를 미국의 항구들, 비옥한 들판과 끝없는 산림, 자원이 풍부한 광산들,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무역업, 공교육 시스템과 학습 기관들에서 찾았다. 또한 미국의 민주적 의회와 독보적인 헌법에서도 찾아보려 애썼다. 그러다 미국의 교회에 방문해서 선(善)에 대한 강렬한 설교를 듣고 나서야 나는 미국의 천재성과 국력의 비결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말을 토크빌이 했건, 그와 동시대의 사람이 했든지 간에, 그 내용은 진실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언급은 토크빌의 다른 의견들과도 확실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나라 전체에 종교적 양상이 매우 강했다는 것이다.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수록, 그 종교성에서 기인한 훌륭한 정치적 결과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 노예제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답한다. 먼저, 미국 초기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노예제도라는 용납할 수 없는 악행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 둘째, 노예제도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대부분 행해지던 관습이었다. 미국의 경우, 건국 초기부터 유럽에서 자연스레 유입되어 버린 것이다. 셋째, 미국이 독립한 지 100년도 되지 않아 노예제도라는 명을 깨뜨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건한 신앙 덕분이었다. 노예제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 그것을 없애버린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이 악한 제도를 오랫동안 관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공헌했다. 미국이 다시 선해지지 않는 이상 다시 위대해 질 수 없다. 선함은 경건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즉,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없다.



▶ ‘Make America Godly Again’으로 고쳐쓴 MAGA hat(출처: gracenotesserm ons 캡처)

그러므로 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쓰여진 메가 모자(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hat)를 볼 때 마다 ‘미국을 다시 경건하게(Make America Godly Again)’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모자의 빨간색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게 된다. 물론 미국은 완벽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언제나 해결해야 할 문제와 화젯거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미국의 경건한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미국은 다시 위대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경건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말이다. [GNPNEWS]

번역=복음기도신문 국제팀

에티오피아, 21세기 들어 개신교 급성장... 강력한 기독 리더십 필요

종족·종교 분쟁으로 240만 명 이상 실향민 신세

87개 종족, 1억 99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 오랫동안 억눌린 종족 연합체로서,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직면하고 있는 크고 즉각적인 위협은 종족 간의 분열과 공동체 간의 갈등이다.

2018년 집권한 새 총리 아비 아흐메드(41)의 개혁을 통해 정권을 잃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또 공동체 간의 폭력도 고조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는 현재 24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있고, 그중 140만 명은 201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내부 공동체 간의 폭력으로 고향을 잃었다. 2018년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 보아도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향은 없다.

대부분의 폭력은 소수 종족이 공

격을 받는 종족 간의 분쟁이다. 특히 종족적 선동 행위가 실패한 지역에서 종교 간의 폭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 심각한 문제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수 집단이 공격받을 때, 지역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2월 4일, 암하라 지역의 남쪽 곤다라 지역인 에스타 우레다에서 두 개의 모스크가 불탔다. 아디스아바바 북쪽, 남부 곤다라 지역은 에티오피아 정교 96.5%, 이슬람교 3.5%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식 장소를 장식하던 이슬람교도들은 정교도 관련 이미지가 분쇄된 서류 사이에 함께 분쇄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평화

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힘썼다. 두 개의 모스크가 불에 탄 것은 바로 그날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이슬람 주교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종족 간 소요를 촉발하기를 바라면서 전례 없는 공격을 선동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2월 9일 남부(SNNPR) 알라바 지역에 있는 알라바 쿨리토 마을에서 적어도 10개 이상의 교회가 불탔다. 아디스아바바 남부, 알라바 지역에는 이슬람교도 93.9%, 에티오피아 정교도 4.6%, 개신교도가 1.2% 있다. 공격을 주도한 이슬람 청년들은 인근 마을의 이슬람 사원이 불에 탔다는 허위 보고를 듣고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모스크와 이슬람교 재산에 큰 피해가 없었다. 아마도 누군가 이슬람 세력 중 이 같은 선동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

3월 2일 토요일, 에티오피아인들은 아드와 전투 123주년을 기념했다. 1896년 종족과 언어가 다른 7만 3000명 이상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19세기 초 식민제국을 확장하려는 열망을 가진 이탈리아 군대 2만 명을 물리치기 위해 단결했다. 이 승리로 에티오피아는 독립을 지킬 수 있었고, 이는 ‘서구 침략에 맞선 흑인들의 첫 승리’였다. 국민통합과 운명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아비 총리는 이번 행사를 부활시켰다. ‘아드와, 우리 단결력의 각인’이라는



▶ 아비 아흐메드 총리(출처: bbc 캡처)

정신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1974년에 개신교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했지만, 2007년 인구조사에서는 18.6%로 늘어났다. 대부분의 성장은 금세기에 발생했고, 아비 아흐메드 총리를 포함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슬람교에서 개종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내부에서도 신앙 회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진행 중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는 연약한 젊은이들이 선동 행위를 거부하고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지도자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GNPNEWS]

번역=복음기도신문 국제팀

기획 | 창조 이야기(12)

극지방의 얼음 기둥이 밝혀주는 지구의 나이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미국 덴버에서 강연을 하던 때였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했다. “호빈드씨, 당신은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되었다고 가르치고 다니는데 우리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들은 나를 덴버 외곽 지역 레이크 우드에 있는 커다란 냉동고로 데려갔다. 그곳은 국립 얼음핵연구소였다. 영하 36도의 냉동고로 들어가야 했기에 그들은 나에게 커다란 방한복과 모자, 장화와 장갑 등을 입혔지만 남부의 플로리다 출신인 나는 들어가자마자 얼어버렸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그린란드에 가서 얼음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 커다란 파이프를 구멍을 뚫을 때 파이프 안에 들어오는 얼음 핵(기둥)을 여기 콜로라도주 레이크 우드에 가져와서 저장합니다. 그렇게 가져온 얼음 핵들이 여기 이 냉동실에 10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얼음 핵 하나를 보여주

며 말했다. “여기 나무의 나이테 같이 생긴 고리 보이시죠?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연하고...” 나는 아주 선명하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고리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했다. “여름에는 눈이 약간 녹는데 다시 얼 때는 어둡게 보이는 투명한 얼음이 되고, 겨울에는 눈이 푹푹 얼어 녹을 기회가 없어서 여기 희게 보이는 층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층들은 여름, 겨울, 여름, 겨울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가장 길게 판 것은 1만 피트(3km)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얼음 핵의 고리들은 13만 5000개나 됩니다. 당신이 지구가 6000년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적어도 지구가 13만 5000년은 되었



▶ ‘잃어버린 비행 중대’로 알려진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종된 전투기. 이론적으로 얼음층이 16만년으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48년밖에 지나지 않았다(출처: ancientdestructions 캡처)

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비행중대’가 알려준 비밀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그 고리가 1년짜리라고 추정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잃어버린 비행중대’에 관해 몰랐던 것 같다. 2차 세계대전 때 공군 비행기들이 연료가 떨어져서 그린란드에 내려앉은 적이 있다. 그 비행기들은 그곳에 남겨졌다. 그때가 1942년이였다. 전쟁이 한창이어서 그 비행기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렸다. 켄터키의 한 부유한 백만장자가 기발한 생각으로 비행기를 찾으려고 하기 전까지는 잊혀졌다.

그들이 그 비행기들을 찾으러 갔을 때 비행기는 얼음에 갇혀있었다. 비행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 얼음 속을 볼 수 있는 지반 투과 레이더를 사용했다. 비행기를 꺼내기 위해 얼음에 구멍을 뚫고 녹였다. 표면 아래로 263피트(80m)나 깊이 내려갔다. 얼음을 녹이고 내려간 곳에서 비행기를 분해했고 조각들을 구멍 위로 꺼내 올렸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켄터키주 미들버러에서 다시 조립했다.

그 비행기는 얼음 속에 48년간 있었고 263피트 아래에 있었으니까, 계산해보면 일 년에 5.5피트(1.6m) 두께의 얼음이 쌓인 것이다. 국립 얼음핵연구소에서 가장 깊이 뚫은 1만 피트를 5.5로 나누면 1800년 정도로 계산된다. 더 깊은 층들은 ‘빙하만년설’이라고 불리며 더 밀도 있게 압착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4400년은 모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압착되기에 충분한 시간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북극과 남극에 왜 더 많은 얼음이 있지 않는가?

나는 비행기를 얼음에서 꺼낸 밥 카딘을 만나서 물었다. “밥, 비행기 꺼내려고 얼음을 파내려 갔을 때 얼음 고리들을 보셨나요?” “예, 수백 개 봤죠.” 나는 의아했다. “잠깐만요. 어떻게 48년 만에 수백 개



▶ 극지방에서 발견되는 얼음 핵(기둥)의 단면도. 과학자들이 얼음 핵이 1년마다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온도변화에 따라 일 년에 몇 차례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의 얼음 고리가 있을 수 있죠? 48개 정도의 고리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는 대답했다. “누가 그걸 1년짜리 층이라고 하던가요?” 그는 그 고리들이 ‘여름, 겨울, 여름, 겨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따뜻함, 추움, 따뜻함, 추움’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것을 1년 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무식하든지 거짓말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그냥 무식한 거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식한 건 고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멍청한 것은 영원하지만 무식한 것은 고칠 수 있다. 그것이 차이점이다. 에스키모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호빈드 형제님, 제 차에 8시간 만에 15개 층의 눈이 쌓였어요. 15인치가 아니라 15개의 분명한 눈의 층입니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50여 년간 사역했던 선교센터 폐쇄를 앞두고

무슬림 복음화의 황금어장, 마르세유

프랑스의 마르세유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 대륙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곳 무슬림 인구는 약 35만 명 정도이며 대부분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러다 프랑스가 19세기 초 북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후 많은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건너와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북아프리카와 교류가 매우 많습니다. 이곳에 사는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이 자주 본국을 방문하고 있고, 또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곳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북아프리카 내에서는 선교가 매우 어렵지만 지중해를 건너온 이들에게 이곳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무슬림들은 특성상 같은 무슬림들과 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에 적대적이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항구에서 성경 전달 사역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이곳에 북아프리카와 마르세유를 왕래하는 배들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성경 전달은 새벽 5~6시에 시작되어 오전 11시경에 끝납니다. 알제리와 튀니지 무슬림들에게 성경 패키지를 전달하여 본국에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이들에게 성경 패키지를 전달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과격한 행동으로 우리를 저지하기도 하고 어떤 이맘은 성경을 빼앗고 던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만큼 저희도 무슬림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랄 음식이예요?” 물던 아이가 예수님 영접

약 2주 전 난민 어린이 3명과 20대 여성을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인도인 2명, 알바니아인 2명. 이들은 모두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습



니다. 집으로 초청하여 점심으로 피자를 주문했는데 오히려 14살인 인도 어린이가 할랄 음식이냐고 물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소고기로 만든 것인데 무슬림들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를 포함한 4명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의무나 사역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난민 아이들은 약 30여 명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림 그리기와 축구를 하며 아이들과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아내는 여성들에게 손톱 매니큐어 칠하기, 손톱 깎아주기, 머리 염색해주기를 하면서 어른들과 만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이들과 한 번 더 만나 주님을 만나도록 돕고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모임을 가지며 이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난민 담당 책임자가 허락을 해야합니다.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52년간 복음을 전했던 선교단체 철수

이곳에서 52년 동안 사역했던 선교센터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1966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소수민족에 70개 언어로 성경 CD를 만들

어 발송하고,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여 전파를 송출하고, 복음전파를 위한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개종한 무슬림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섬겨오던 영국 선교단체가 재정적인 이유와 사역자의 부재로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 사역에 필요한 책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런 단체가 재정 문제와 사역자가 없어서 철수를 한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랜 기간 이슬람 사람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성경과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회심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하며 복음전파의 병참 본부의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이곳은 이슬람 선교에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르세유가 북부 아프리카의 무슬림들과 난민들이 복음을 만나는 땅이 되고,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돕는 땅 되도록. [GNPNEWS]

마르세유=최득신·송수연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핍박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인도 기독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존** 목사와 **레베카** 전도사

최근 오픈도어선교회에서 발표한 2019년 기독교박해순위에서 10위권으로 진입한 인도.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다가온 것일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듯 인도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 최근 말씀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존 목사와 그의 처제인 레베카 전도사를 만났다. 인도로 돌아가기 전날 사도행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인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지요?

존: “저는 ‘아가페 기도의집’이란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인도는 힌두국가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인에게 드러내놓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 의료 선교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모든 인도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여성도의 숫자가 많습니다. 자매들이 예수를 믿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자매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믿음이 자라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힌두교에서 개종한 1세대들입니다. 다음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 전도를 할 수 없으니 교회 앞 건물을 빌려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아이, 가정이 깨져서 편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를 데려와서 그들에게 밥을 주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레베카도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종 1세대 교인들 출석

- 전도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레베카: “저는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6세부터 사역을 시작해 지금 10년 정도 됐어요. 복음을 접할 기회도 없었고, 또 무조건 복음을 거부하다가 13세에 존 목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3년 동안 훈련받고 16세에 주님이 불러 주신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 어린 나이에, 놀랍네요. 먼저 이런 변화의 출발점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나요?

존: “저는 힌두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2004년에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정보기술(IT)을 전공했는데, 그때 한 기독교 집안에 과외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승려였기 때문에 기독교 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하지만 보수를 많이 준다고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 속으로는 기독교 가정을 힌두교로 개종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저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예요.”

레베카: “대답을 했을 뿐 아니라 성경도 읽어보라고 권했어요.” 어린 시절 존 목사님을 과외교사로 만난 레베카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존: “저는 힌두교신자이지만 이슬람의 쿠란도 읽어보고 성경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달랐어요. 힌두경전이나 쿠란과 달리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적잖이 충격과 감동을 받았죠. 힌두경전을 보면 ‘크리슈나’라는 신이 죄인들을 죽이고 착한 사람들을 살리려 이 땅에 왔다고 되어있는데 성경은 정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말입니다. 당장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레베카가 다니던 교회였어요. 레베카는 제가 가정교사로 가르쳤던 학생이었죠.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죠. 그게 2005년이예요. 집을 얻고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2006년에 침례를 받고 2010년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시다. 그해 레베카의 첫째 언니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 주님이 목사님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주셨네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네요.

존: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주위에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며 믿음 좋은 자매를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레베카의 큰 언니였죠. 22일간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 아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 집의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된다. 이 집에서 사역하는 사람으로 살기 바란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정했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은 브라만 신분을

버리고 하찮은 기독교인과 살 수 있겠냐며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성경의 진리에 충격

- 어려움이 많으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넌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곧바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성도는 없이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요. 그 시간은 주님께 양육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떠났으니 간호사인 아내만 경제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모았던 금을 하나씩 팔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갖고 있던 금을 다 팔고나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됐습니다. 물론 굶는 날도 많았죠. 장모님은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팔고 남은 야채들을 주우러 가면 ‘집에서 소를 키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전 소가 4마리 있다고 대답했죠. 네 식구였거든요(웃음). 주위에 많은 목사들이 어리석게 왜 좋은 직장 버리고 힘들게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과 아내, 처제까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주실 것을 바랐습니다. 그런

3년의 시간은 육체의 핍박은 없어도 영적으로 핍박받는 시간이었습니다.”

- 하나님만 바라는 것, 그것이 오직 믿음이겠지요?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존: “2013년부터는 마을을 찾아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까지 500여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과정에 육체적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맞기도 하고 위협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사탄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힌두 지도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죽을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전도하려 한 마을에 갔는데 마을 사람 400명 정도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힌두사원으로 우리가 족을 끌고 가서 힌두 우상에게 강제로 절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단호했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린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들은 사원밖에 있는 우리 차를 다 부수고 담배꽂초를 우리 얼굴에 뱉었습니다. 쇠뿔뿔이 우리를 때리고, 장모님은 머리채를 잡힌 채 땅바닥에 끌려다녔습니다. 처제는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둘러싼 400명 군중 사이로 승려 한 명이 나오더니 나를 붙잡으면서 ‘너희 다 죽게 생겼다.’며 우리를 무리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부서진 차를 타고 도망쳤고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오며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깨졌지만 우린 돌에 맞지 않았습니다.”

-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많이 다치진 않으셨나요?

존: “돌아와 제 몸을 보니 몸 전

체에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등에 나있는 멍 자국이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가족들은 거실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도 우리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와 병원에 가자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아무데도 가지 않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며 잠이 들었는데 방에서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손이 나를 만져주었습니다. 손이 지나갈 때마다 아팠던 통증이 사라지며 치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도들이 병원에 가자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성도들을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온 결과는 다친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단 폭행 현장에서 힌두 승려의 도움으로 살아나

-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존: “그날 함께 핍박받았던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들이 못되고, 좋은 남편이 못되고, 좋은 동생이 될 순 없지만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가족들은 오히려 이미 좋은 남편이며, 좋은 아들이며, 좋은 오빠라고 말했습니다. 이 핍박을 계기로 가족이 더욱 사랑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한 그 이후 교회도 급성장했습니다. 놀라운 일 한 가지는 그해 연말 우리를 구해준 승려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에서 미안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 마음이 열렸습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 함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는 힌두교 책임자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승려의 딸 중 한 명이 우리 교회의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GNPNEWS]

C.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도 기독교인들의 모습

본지자료사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언약성취의 복음(4)

다윗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하나님을 분명 만난 사람은 '영적 전쟁'의 삶을 산다. 아무리 넘어지고 실수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어 도 오직 주님 편에 서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을 심히 미워한 것처럼(시 139:22) 세상과 옛 자아에 대하여 대적하고 전쟁한다. 내가 주인 되었던 익숙한 모든 영역을 마음에서 완전히 미워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존재들에 대해 대적하자(약 4:7). 영적싸움에는 인간의 전인에 복음의 무장이 필요하다(엡 6:10 이하). 감정과 정서까지, 나의 모든 것을 철저히 복음으로 구속시키는 싸움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주시길 구한다(시 139:23~24).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어서 자기를 기만하기도 하고 자기도취에 빠지게도 만든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았기에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주님이 진찰해 주실 뿐 아니라 보호해주시길 간구했다.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에 빠지지



일러스트=노주나

않게 조심하라. 다윗의 원래 모습이 드러난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을 보라. 이 일이 없었더라면 다윗 역시 자신에게 도취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아추구하게 만드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볼게 된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이 드러나도록 허락하셨다.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은 비참한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수많은 속임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어 드러

내주셔야만 한다. 거룩과 정욕, 은혜와 자아추구는 공존할 수 없다.

순정을 다한 순도 높은 사랑의 길, 십자가 복음의 길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를 구원과 성전의 터로 바꾸셨다. 놀라운 은혜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자녀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어

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 다윗의 고백이 떠나지 않아야 한다. '주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진찰주소서. 주님, 나를 알아주시고 판단해주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부르심의 걸음을 끝까지 걷는다. 타협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부르심의 끝자리까지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배신할 여유가 없다. 순정을 다한 순도 높은 사랑으로 좁은 길, 십자가 복음의 길만 걸어야 한다.

다윗의 간구가 오늘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교정하시지만 뜨겁게 사랑하며 더욱 진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에 허덕이며 살 수 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요 16:13~15).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 삼으시고(고전 3:16) 나를 통치하시며 하나님 수준의 기

도, 즉 열방을 구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이미 응답된 줄 알고 담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다(요일 5:14~15).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성취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열방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를 통해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이루어 가신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친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주소서!'(시 139:24)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며 유일하신 주님께 나의 영원한 인생을 맡길 준비가 되었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날까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다윗의 부르심이고, 나의 부르심이며 교회의 부르심이다. 그 부르심이 이 땅의 가치로 보기에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더욱 기쁨으로 달려가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2017년 4월)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히브리어로 만나는 복음 (32)

불임은 한나 개인의 슬픔을 넘어 이스라엘의 운명

히브리 정경의 순서로 8번째 책이자, 구약의 봉우리라고 하는 선지서의 3번째 책(여호수아-사사기-사무엘상-하)인 사무엘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삼상 1:1)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라마타임 초핍(ים צופים הרמתיים)'이라는 히브리 이스라엘 지명을 통해 초두에서 동터오는 이상적인(?) 왕의 시대가, 험난한 질곡을 통해 도래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높은 곳, '라마타임(쌍수)'에서 동터오는 왕의 통치를 '초핍', 즉, 보고 또 보고 멀리 넘어 반복하여 봄으로써 결국은 왕의 통치가 아닌 오히려 메시아 신정 통치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둠과 혼돈과 절망이라고 하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자식이 없는' 한 여인, 한나와 그녀의 주위에 어그리진 상황에 초점을 집중시켜 연결하고 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

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사 21:25)

“그(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삼상 1:2)

에브라임 지파의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불임'이라는 개인적인 슬픔은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운명이 되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0년. 사사 시대를 마감하면서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도 가나안 정복의 환희도 잃어버린 채 가나안 땅의 세속적인 문화의 흐름을 타고 그 문명에 달라붙어서 거머리같이 적응해가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원래 출생할 때부터 세상 나라와 구별된, 운명 자체가 출애굽기 19:5~6절에 기록된 대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다. “הקדש(세굴라)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렇게 태어났다.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다.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인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 가나

안의 타락한 문화에 몸을 던져 더러움에 만신창이가 되었다. 무엇보다 성전에서 수종 드는 대제사장 엘리 가문은 여호와 종교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불임의 여인 한나와 통곡하는 그녀의 기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삼상 1:10)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정확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영적 후손을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였다. 그녀의 통곡 소리는 이러한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타락한 이스라엘 역사에 끝이 온 것이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역사의 끝자락. 하나님의 자녀를 태생할 수 없는 '태(rechem, womb)'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에스겔 선지자가 통곡하며 예언한 대로 끝을 맞은 것이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불지어다 그것이(끝이) 왔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

복음과 기도미디어
Bible & Prayer Media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Life in the Gospel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데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전도지 규격: 182X157mm(B5사이즈)
가격: 100매(10,000원) 이상 주문 가능

구입문의 야긴과 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겔 7:3,6)

그러나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끝 지점, 마지막 지점에서 일어난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바로 그 끝 지점. 마지막 선은 진실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이

다.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가 절망이면 하나님도 절망이고, 우리가 끝이면 하나님도 끝이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대로, 그분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 72:18) 대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계속> [GNPNEWS]

김명호 교수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소장)



그리스도인의 패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10대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 어떤 사고의 변화를 경험할까? 기독교 학교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학습하며 경험한 내면의 변화를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 요약문이다. <편집자>

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옷을 입고, 패션(fashion)을 따른다. 옷은 우리가 입는 천과 면을 가리키고 패션은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옷 또는 옷차림 머리 모양 따위의 일정한 형식을 말한다. 패션은 한 마디로 특정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유행이다. 패션의 변천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포함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패션은 일시적이다. 유명 연예인, 디자이너와 같은 사람들이 선보인 무언가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따라한다. 사람들은 이런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싶어 하는데, 관찮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유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예쁜 옷을 입는다고 세상의 유행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옷을 입는 마음과 동기가 중요하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관찮은 옷과 물건으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때에 너희는 그가 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2)

인류 최초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죄로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수치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입었지만, 금세 말라 부서졌다.(창 3:7)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창 3:21) 우리에게 은혜로 옷 입혀 주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관찮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며 세상을 따르



일러스트=고은선

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 새로운 옷이란 어떤 옷일까? 그리스도의 옷.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엔뒤오’(ἐνδύω)이다. ‘안에, 의하여’라는 뜻의 전치사 ‘엔’(ἐν)과 ‘들어간다, 입장하다, 잠수하다’라는 뜻의 ‘뒤노’(δύνω)가 합쳐진 단어다. 옷 속으로 ‘들어간다, 스며들다’라는 말이 곧 의복을 걸치다, 입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뜻마저도

의역이 된 것이라고 한다. 직역하면 ‘옷 안으로 들어간다’이다. 결국,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우리 학교는 복장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평상복을 입다가 등학교 시 반드시 교복을 입는다. 특히 우리의 교복은 우리가 다음세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준다. 왜 이런 가이드가 필요할까? 가이드는 세상의 일시적인 유행으로 나를 감싸보려는 모든 시도를 막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기를 도전한다.

학교 시 터미널에서 온갖 멋을 낸 사람들 속에서 교복을 입은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가려보기도 했다. 그런데 ‘복음과 패션’이라는 주제 앞에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라는 믿음

을 얻게 됐다. 나는 누구보다 패션에 민감했다. 하지만 주님은 믿음의 결단을 원하셨고 나는 학교 규정을 어기는 옷들을 다 버렸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떨시치지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찬양가사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알고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것이었다. 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안으로 들어가 덮어졌다! 그리스도인의 패션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GNPNEWS]

맹다솔(19)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탈북민 대북송금 연간 3억 2890만 원, 북 가족들 한국사회 동경

이 시대 가장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 가운데 62%가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으며, 송금규모는 연간 약 3억 289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7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한국 내 탈북민들의 경제사회통합 상황을 조사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탈북민 4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자의 61.8%(256명)는 북한으로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북 송금자의 1회 평균 송금액은 277만 8800원, 연간총액 약 3억 289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탈북민 3만 2000명의 규모를 적용하면 실질적인 대북 송금 액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VOA뉴스가 전했다. 또 연간 최고 송금액은 2000만 원, 최저 송금액은 3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송금 목적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 지원’이 86%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비와 교육비 지

출, 장사 자금 등으로 나타났다. 송금을 받는 대상은 형제·자매가 37.5%, 부모 31.6%, 자녀 12.3% 순이었다. 송금 비용 마련은 본인이 ‘일을 해서 번 돈’이라는 응답이 63.9%, ‘정부 정착금이나 지원금’이 21.6%, ‘은행 대출’과 ‘지인으로 부터 빌림’이 각각 5.2%였다. 또한 주로 중국 내 조선족 등을 통해 보내는 송금 수수료는 평균 29.3%로 인터넷이나 은행을 통해 보내는 일반 송금보다 10배 가량 높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단체의 임순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탈북민들의 송금이 북한 내 가족의 경제와 생명을 살리는 젖줄이라면서 “아무리 많은 수수료를 떼이고 일부 뇌물로 바쳐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전체

생활에 그런 큰 돈이 올 기회가 없다. 그걸 바탕으로 장마당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북한은 특히 이런 탈북민들의 송금이 경제뿐 아니라 부정부패가 만연한 북한 사회에서 가족의 형기를 낮추거나 구금자를 석방하는 생명의 도구로도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대북 송금은 또 북한인들의 대남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4%가 대북 송금을 통해 한국사회를 동경한다고 답했고, 14.8%는 탈북 의식을 높인다고 답하는 등 71.8%가 송금이 북한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한편, 대북 역송금, 즉 북한에서 보내오는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북한의 가족에게서 돈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총 8명으로, 중국에서 송금된 4건과 북한에서 보내준 경우 4건이었다. 역송금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지출됐다.

윤여상 센터 소장은 “2015년부터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역송금 실태를 매년 확인하고 있다.”면서 “그간 많아야 1~2건이었던 역송금 사례가 올해 조사에서는 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하고 상행위 등을 통해 개인이 부를 축적하면서 북쪽의 가족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에게 돈을 보내줄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 외에도 북한에 있을 당시 ‘외부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엔 62.3%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 중 80.2%가 TV, 영화, 게임을 통해, 38.3%가 노래를 통해, 12.8%가 뉴스를 통해 정보를 접했다고 했다.

또 외부 정보를 접한 탈북민의 경우 47.2%가 ‘남한에 대해 호감을 느꼈다’고 대답했고, 38.6%가 ‘탈북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18.9%가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이 생겼다’고 대답했다. 29.9%는 ‘새로운 정보를 배웠다’고 답했다. [GNPNEWS]



▶ 북한 지방 장마당(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캡처)



자유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능력

죄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바로 ‘가장 악독한 죄인 중 한 명’이라는 내면의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없는 한 죄에 대한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관계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죄의 본질은 사람이 자신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릇된 성향을 가지고 다른 인격체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은 할 수 있다. 즉, 언제나 내 방식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향을 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다루실 때 이 같은 인간의 독자성을 다루신다. 이때 우리의 분노를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참된 자유가 남는다. 자유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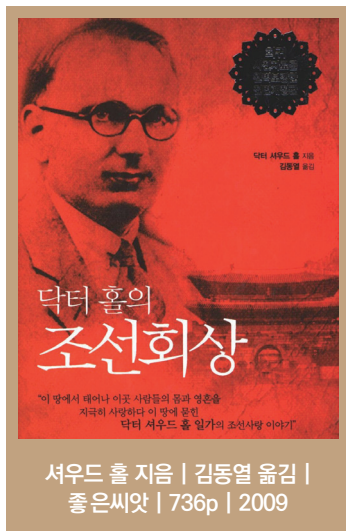
<제자도(2012), 오스워드 챔버스>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사랑하는 가족이 묻힌 조선을 떠나지 못한 선교사의 꿈



조선회상은 닥터 셔우드와 그의 아내 로제타 그리고 아들 닥터 홀과, 메리안으로 이어진 2대 의사가문이 조선에 선교사로 들어와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펼친 이야기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러하듯 이들의 조선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통해 투영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조선은,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풍토병에 걸린 닥터 셔우드는 34세의 이른 나이에 조선에서 세상을 떠난다. 홀로 남겨진 로제타와 그의 어린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다가 4년 만에 다시 조선으로 향한다. 조선회상에는 과장된 무용담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흥낼 수 없는 믿음의 여정들이 그려져 있지 않다. 어린 딸의 죽음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로제타의 절망과 자신 스스로는 너무 연약하고 미숙한 인격이라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아버지의 그늘을 부담으로 여기는 아들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기록되어 있다.

소외된 자를 향한 로제타의 사랑과 열정은 한국의 여성과 맹인들

에게로 향했고 결국 그 열정은 최초의 여성의과대학과 맹인학교로 열매 맺게 됐다. 그 당시 조선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다. 특별한 것은 이들을 통로 삼아 이 땅에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다.

한 사람의 결단과 열심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결국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지점에서 반드시 돌아서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진 자들은 지쳐도 쓰러져도 결코 돌아서는 법이 없다.

최초의 여학교, 맹인학교 설립

매사에 철저하고 목표를 향해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로제타와는 달리 아들 닥터 홀은 부드러운 심성을 가진 것으로 여러 부분에서 묘사된다.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 앞에 한없이 낮아진 겸손한 심령으

로 주님을 찾는 닥터 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선에서의 이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닥터 홀은 결핵 퇴치 사업의 꿈을 품고 여러 번 좌절과 낙망 가운데에서도 감히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린다. 조선의 세계관과 서양의 가치체계가 충돌할 때, 그는 다투는 대신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닥터 홀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의 순전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일화도 책에 담겨 있다. 의료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닥터 홀은 영민하고 민첩한 아내 메리안이 자신보다 더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자 '메리안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경쟁의

식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어린아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그는 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였다. 큰 절망 앞에서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망감이 이유 없이 기쁨의 감정으로 바뀌는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어 일어나 걷는 닥터 홀의 여정은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열정이며 사랑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엡 1:19, 새번역)

이제는 고인이 된 닥터 홀 가의 2대에 걸친 사랑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더 큰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 주님은 이제 조선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신다.

[GNPNEWS]

최현정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취업에 줄줄이 낙방할 때 내가 바라볼 곳은?

제대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취업 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봐주는 데가 없고 열람을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수많은 이력서들 사이에서 묻히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곳이 금방 나타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몰라워서 당황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캄캄한 현실의 벽은 커져만 갑니다. 나의 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음에 조급함과 불안함이 나의 믿음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정말 가고 싶었던 방송국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상 질문들을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난 뒤에는 정말 잘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뿌듯한 마음으로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말씀기도가 끝나고 저녁식사를 맛있게 한 뒤 쉬는 시간 전화기를 확인해보니 문자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너무도 뜻밖에 다른 지원자가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마음이 상해서 도무지 기도할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순 없기에 계속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러스트=이수진

그때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정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에 이어서 나온 기사 제목은 “취업 스트레스 시달리는 기독교 청년, 교회 지원 절실. 교회, 먼저 청년 현실 이해해야”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는 제 이야기였고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기독교 청년들에게 있구나. 그리고 해결책은 확실하구나.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

도! 오직 예수뿐이란 것을 깨닫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좋은 조건과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균형)가 맞고 적성과 흥미가 있고 근무환경이 환상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주님이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내린 결론’을 붙잡는 믿음은 날마다 실제여야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붙잡았어도 내일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은 삶을 통해 가르쳐주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놀기만 하는 백수라는 두려움에 이곳저곳 아무 곳이나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기다렸습니

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초조해져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를 타협하고 일하러 갈까하는 유혹이 수없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이 결론을 믿음으로 확정하고 또 확정하게 하셔서 늘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을 잘 아는 주님이셨습니다. 늘 돌보아 주시는 아바 아버지시며 ‘주님 어디 있나요?’ 찾을 땐 바로 내 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며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기로 결심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2019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잊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의 길을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조차도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 주께서 아시니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GNPNEWS]

장수영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3. 1 ~ 3. 13 (가나다 순)

개인

김사회 김수미 김유남 노은옥 박상기 박성규 배종덕 안민자 안병윤 안수경 유국주 유시아 윤경석 윤미자 이동희 이삼연 이순 이영옥 이준진 이지영 이진희 이형순 장 진 정영숙 정효진 조상국 조형광 최근희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문광교회 선한목자교회 웹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신일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천북장로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